# 남구가 찾은 '평화 콘텐츠' 대한민국이 주목했다

**'평화의 전도사'**
**부산남구신문**

부산남구신문이 발굴해 주민들에게 소개한 '평화 콘텐츠들'이 최근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남구 주민이라면 지난 6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에서 반가운 인물을 발견했을지 모른다. 이날 추념식 방송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벽안의 노병이 등장해 '아리랑'을 부르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방송에선 이 노병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 국민적 궁금증을 자아냈고, 다음날 주요 신문들은 그가 누구인지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그는 한국전 참전용사인 미국의 윌리엄 빌 웨버(96) 전 대령이다. 두 달 전 부산남구신문(2021년 5월 1일자 303호)에 '한쪽 팔, 한쪽 다리 잃었지만 위대한 자부심을 얻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웨버 대령에 대해 생애부터 근황까지 깊게 다룬 기사는 국내 언론에서 본지가 유일하다. 그는 공수부대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해 원주지역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오른쪽 팔을, 후송 도중 다시 폭격을 받아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당시 혹한으로 절단 부위가 바로 얼어붙어 혈액 손실이 적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퇴역하지 않고 이후 대령까지 진급하는 등 현역복무를 마친 전설적인 군인이다.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로 활동 중인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중파TV를 통해 연이어 소개됐다. '6·25 기획 다큐온-70년의 기억, 그리고 치유와 평화(KBS1TV 6월 26일 방영)'에서 캐나다 윈저에서 한국인 부인 막례 커트니 여사와 함께 노후를 보내는 커트니 씨가 전쟁 당시의 기억과 유엔참전용사들을 위해 노력한 일들이 방영됐다. 앞서 KBS 부산방송총국은 커트니 씨와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한 1분짜리 미니 다큐를 6월 한 달 매일 송출했다. 이밖에 영미권 소식을 번역해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단골이슈'에서 지난 2월말 커트니 씨를 다룬 9분짜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6월말 기준 조회수 131만명, 댓글 2245개가 달렸다.

인기 역사 예능프로인 '선을 넘은 녀석들(MBC 6월 27일 방영)'에서도 6·25전쟁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한해협해전을 다뤘다. 대한해협해전은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인 백두산함(PC-701)이 1950년 6월 26일 새벽 북한 무장수송선과 교전 끝에 오륙도 인근 해역에서 격침시킨 6·25전쟁의 첫 해전이다. 본지는 6년 전 '다윗과 골리앗 싸움…오륙도 앞 승전보는 天運(천운)'이라는 제목으로 백두산함과 대한해협해전과 관련해 특집기사를 실었다. '1950년 6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긴박했던 상황을 당시 승조원이었던 황상영 백두산회동지회장과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시간대별로 재현했다.

1 현충일 추념식에 출연한 웨버 대령. 2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다룬 KBS 다큐. 3 KBS 다큐에 출연한 빈센트 커트니 씨. 4 대한해협해전을 다룬 MBC 예능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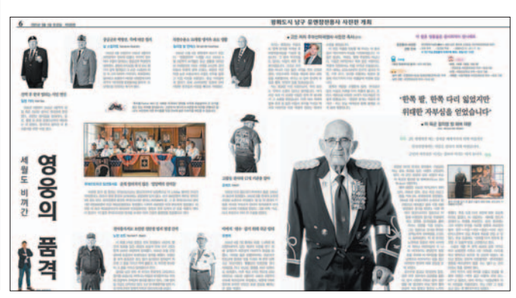
**본지 조명한 웨버 대령 현충일 추념식 깜짝 등장**
**남구 명예기자 빈센트 커트니씨 다큐 잇단 방영**
**6년 전 특집기사 '홍남부두, 기적의 배' 조명**
**'6·25 비사 대한해협해전' MBC예능프로서 다뤄**

군수물자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피난민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와 라루 선장의 이야기를 다룬 '1950년 흥남철수의 비밀(KBS1 6월 19일, 26일 방영)'이 2부작으로 방영돼 깊은 울림을 남겼다. 본지는 2015년 1월호에 '1만4000명 싣고 필사의 탈출,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빅토리아 메러디스호의 이야기를 분단70년 특집 지면으로 다뤘다.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으며 화제를 일으킨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단서를 얻은 뒤, 이 배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워싱턴 포스트지의 빌 길버트 기자가 쓴 저서 '기적의 배(Ship of miracles)'를 입수해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피난 내려와 우암동에 정착한 이춘애 할머니의 이야기도 곁들였다. 이밖에 본지는 이 배가 흥남부두를 떠날 때 바다에 흩어진 기뢰와의 충돌 위험과 혹한 속 피란민들이 제트연료가 있는 배 안에서 불을 피운 아찔했던 일화도 처음 소개했다.

흥남부두 철수의 숨은 영웅 '메러디스 빅토리호(2015년 1월 26일자 228호)'

백두산함의 긴박했던 대한해협해전 (2015년 6월 25일자 233호)

70년 만에 공개된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388명의 사진(2021년 1월 1일자 299호)


미군 참전용사 윌리엄 빌 웨버 대령(2021년 5월 1일자 303호)

# 더튼 출신의 네 소년을 추억하며

6·25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가평전투'를 묘사한 삽화.

빈센트 커트니의
*Freedom is not free*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더튼에서 온 네 명의 소년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주니어 맥칼럼, 이반 맥칼럼, 잭 호프먼, 빌 하웰이다. 당시 인구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소년들이 '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 소속으로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 서약서를 썼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맥칼럼 형제는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우애가 좋았다. 형인 주니어는 참전 당시 스무살이었다. 남동생 이반(당시 18세)은 종종 뒷주머니에 책을 꽂고 다녔다. 어느 날 아침 7시쯤 나는 군복과 군화를 착용하고 하루를 준비하던 주니어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 건조하고 뜨거운 연기 한 모금 내뱉은 뒤 웃으며 말했다. "아침에 담배를 안 피면 사는 낙이 없어." 다른 세 명보다 진지한 잭 호프만(당시 20세)은 강철 케이블처럼 강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동갑인 빌 하웰은 넷 중 가장 크고 튼튼하면서 제일 다정했다. 주니어 맥칼럼, 호프만, 하웰 이렇게 세 명은 한국으로 향했지만 막내 이반은 나이 제한에 걸려 참전이 불허됐다. 솔직히 말하면, 이반은 나이를 속이지 않았고 나는 내 나이를 4살까지 속여 전우들은 내가 20대인 줄 알고 있었다.

나는 서부전선의 해병대보다 1마일 후방에 위치한 예비부대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다. 우리는 해병대 중기관총이 적에게 퍼붓는 무시무시한 총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큰 불이 났다. 중공군의 기관총과 수류탄이 날아온 것이다. 곧이어 미국의 M-1 자동소총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수류탄 폭발음이 크게 들릴수록 기관총은 더 길게 불을 내뿜었다.

나는 이 더튼 출신들과 함께 1마일을 걸어 산을 넘었다. 우리 네 명은 T자형 참호에 몸을 숨겼다. 참호 중앙은 깊었고, 참호 양쪽에 사람 한 명이 겨우 잘 수 있는 선반이 있었다. 참호 위는 텐트 천으로 반쯤 덮여 있었다. 부산 유엔기념묘지에서는 전사한 군인들을 그 텐트 천에 싼 뒤 노란 통신선으로 둘둘 묶어 땅에 묻는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알았다.

머리 위 텐트 천에 서리가 맺혀 촛불에 반짝였다. 우리의 숨소리가 천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미군 포병부대가 8인치포를 설치한 임진강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대포가 한번 발사하면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텐트 천이 요동쳤다. 거대한 포탄은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간 뒤 아치를 그리며 적이 있는 고지로 날아가 지축을 흔들었다. 그런데 세 번째 포탄에 드라이빙 밴드(driving band : 약실회전구조체로 포탄에 회전력을 주기 위해 포신의 강선과 맞물리게 만든 포탄 표면의 얇고 무른 금속 띠) 일부가 떨어져 나가 끔찍한 굉음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우리는 혼이 나갈 만큼 겁에 질렸다. 자정 무렵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고 며칠 뒤 우리중대는 큰 전투를 치렀다. 그 이후 나는 한국에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 나는 온타리오주 액튼이라는 작은 도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액튼의 주요 산업은 가죽 무두질(가공하기 전의 생가죽을 다루는 공정)인데 도시 전체에서 악취가 풍겼다. 내가 길가에 차를 대자 3m 앞에 빌 하웰이 서있는 것이 보였다. 차 앞 유리를 들여다 본 그도 나를 알아보고는 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한국의 고지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캐나다 참전용사·명예기자
〈다음 호에 계속〉

빈센트 커트니 명예기자의 원고료는 본인의 뜻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 '평화도시 남구' 홍보 콘텐츠 공모 당선작 선정

**최우수작에 웹툰 '11월 11일'**

남구가 평화도시 남구를 알리는 동시에 참신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실시한 'UN평화문화특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82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8점 총 11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작품성, 완성도, 활용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김준성 씨의 '11월 11일'(웹툰·사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김종수 씨의 'End of War'(웹툰)과 천동규 씨 외 1인의 '유엔군 속 한국인'(동영상)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작품 '11월 11일'은 남녀 주인공들이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인 '턴투워드부산'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의 평화로움을 전해준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남구의 UN평화문화특구의 홍보를 위해 남구청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UN평화축제에도 활용된다.

미래성장담당관 ☎607-3651

## 6·25전쟁 향배 바꾼 대한해협해전 기념식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6월 25일 대한해협해전 전승 7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참전용사와 유족 등 60여 명만 참여했고 승조원 대표로 황상영(89) 씨가 회고사를 낭독했다.

대한해협해전은 1950년 6월 26일 새벽 백두산함(PC-701)이 부산 앞바다에서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특작대원 600명을 태우고 극비리 침투하던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6·25전쟁 최초의 해전이다.

## 위트컴 장군 기념세미나 7월 12일 유엔평화기념관

6·25전쟁 때 미2군수사령관으로 한국 재건에 헌신한 리차드 위트컴(Richard S. Whitcomb, 1894~1982) 장군의 업적을 조명하는 기념세미나가 7월 12일 오후 1시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올해 3번째인 세미나의 주제는 '위트컴 장군의 정신 계승을 통한 참 군인상, 참 세계인상, 참 유엔인상 구현'이다.

장군은 전역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미재단을 설립하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북한 지역 미송환 미군 병사 유해 발굴에도 힘썼다. 1982년 사망 후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세미나 참석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국비 주/야 (실업자, 근로자)
일반생 주/야 (월25만원)
교재, 실습복 무료제공
병원코디 교육지원
간호조무사
우수 훈련기관 2016.11~2019.10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전원합격 (국비반)
2020-상반기
2019-하반기
2019-상반기
2018-상반기
2017-하반기
2017-상반기
2016-하반기
2015-상반기
유료광고
혜성간호학원
대연역 1번 출구 ☎622-1116, 2055
보건복지부 평가, 3년 지정

미숫가루·선식 쪄서 해드립니다
since 1971
취급품목
참기름, 들기름, 고추, 깨, 찹쌀엿 고추장, 간장, 된장, 소금, 쌀, 잡곡, 진도울금, 아마씨, 귀리 마늘, 생강, 각종 차(보리, 옥수수, 결명자, 둥글레 등)
주문·배달 환영 / 해묵은 천일염 판매
유료광고
과일나라, 못골 건강원 옆
☎621-8115
못골시장 형제상회

부산시가실시하는 직업능력교육 취업희망자모집
부산시 지원(19기생 모집)
*월수당 25만원 지급*
유료광고

| 과정명 | 개강일 | 교육기간 | 수업내용 | 정원 | 자격 |
|---|---|---|---|---|---|
| 기계설계 (2차원,3차원) 엑셀,파워포인트 *수료후 취업* | 2021년 8월 23일~ 11월 30일 (6시간) | 3개월 10 : 00~ 4 : 30 | • 엑셀 자격증 • 파워포인트 자격증 • 캐드기초, 실무 (자격증1, 2급 자격증)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사무 요원 및 도면작성 및 수정 • 취업수당 20만원 지급 | 20명 (선착순) | 만 18세 이상 ~ 연령제한 없음 |

*만 18세 이상~연령제한 없음 20명 모집(주부, 실직자, 고교 및 대학졸업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 출구, CGV(영화관) 옆, 임찬수스피치학원 옆 801호